

23 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우리는 자신을 이길으로써 스스로를 향상시킨다.

(자신과의) 싸움은 반드시 존재하고,

거기에서 이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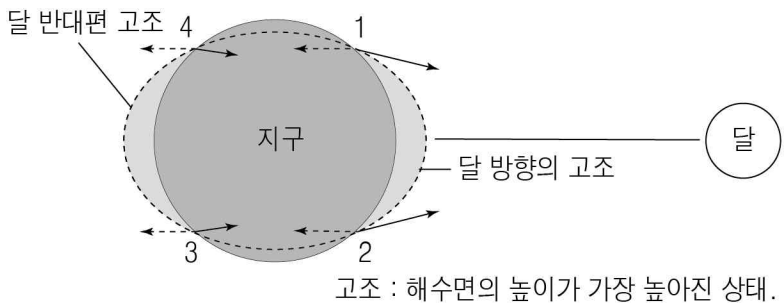
-에프워드 기번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나라의 서해안을 소개할 때 종종 ‘조석 간만의 차가 큰 지역’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때가 있다. 여기서 ‘조석 간만의 차’는 무엇을 의미할까? ‘조석’은 하루 동안 해수면이 오르내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썰물로 인해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를 ‘간조’라고 하고, 밀물로 인해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는 ‘만조’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서해안에서는 하루에 만조와 간조가 두 번씩 일어난다. ‘조석 간만의 차’란 밀물과 썰물로 인한 하루 동안의 해수면 높낮이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흔히 달의 인력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조석’은 기조력에 의한 것이다. 기조력은 달의 인력, 태양의 인력, 원심력이 합해진 힘을 말한다.



그림에서 지점 1, 2, 3, 4의 점선 화살표는 지구의 회전 운동에 의한 원심력을 보여 주고, 달 쪽으로 향하고 있는 실선 화살표는 달의 인력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서의 원심력은 달과 지구의 공통 질량 중심*의 주위를 지구가 회전 운동하여 생기는 힘이다. 원심력은 모든 측정 지점에서 크기와 방향이 모두 같다. 그런데 달의 인력은 달과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크기와 방향이 다르다. 또한, 달의 위상*에 따라 지구 내에서 작용하는 기조력은 그 크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1, 2 지점 사이에서는 달에 가까워 인력이 반대쪽으로 향하는 원심력보다 크기 때문에 이곳의 해수가 그림처럼 달 쪽으로 끌려간다. 3, 4 지점 사이에서는 인력보다는 원심력이 크기 때문에 해수는 달 반대쪽으로 끌려간다. 이렇게 기조력은 해수면의 높이를 변화시킨다.

조석에는 달뿐만 아니라 태양도 영향을 미친다. 기조력은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천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이 천체와 지구 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태양은 달보다 훨씬 큰 질량을 갖지만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보다 훨씬 멀기 때문에 지구에 대한 태양의 기조력은 달의 기조력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달의 위상이 삭과 망일 때, 태양과 달은 일렬로 놓이게 되고 기조력이 가장 강해진다. 이때 조석 간만의 차는 최대가 되고, 이때를 ‘사리’라고 한다. 그런데 달의 위상이 상현과 하현일 때, 달과 태양은 지구를 중심으로 직각에 놓이게 된다. 이때 태양에 의한 기조력은 달에 의한 기조력에 영향을 주어 그 힘을 작아지게 한다. 그 결과 조석 간만의 차가 가장 작게 되는데 이때를 ‘조금’이라 한다. 조금과 사리는 매월 두 번 발생한다.

이와 같은 조석의 변화는 조류의 빠르기와 방향에도 영향을 준다. 조류의 빠르기는 조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조석 간만의 차가 클수록 조류의 속도도 빨라진다. 그리고 만조와 간조 시에는 그 흐름의 방향이 정반대이다.

* 공통 질량 중심: 두 행성이 서로의 중력장 안에 있어 계를 형성할 때, 한 점에 대해서 공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한 점을 공통 질량 중심이라고 함.

* 위상: 위치에 따른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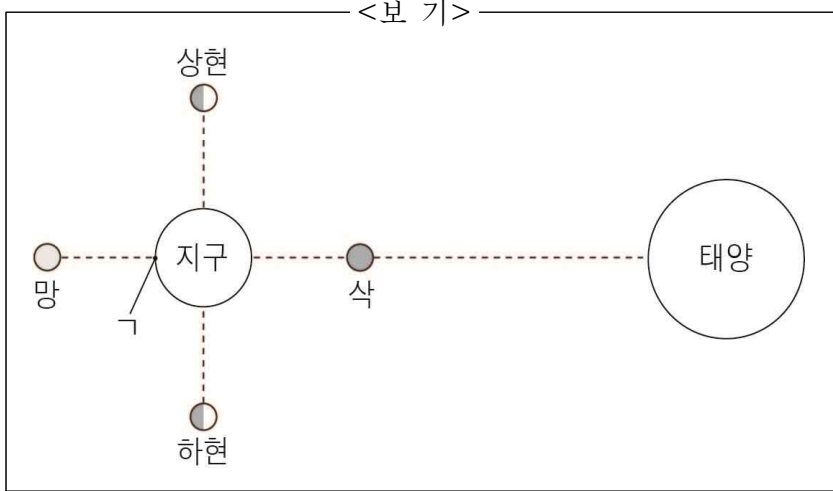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과 관련한 가설에 대해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 ② 대상의 발생 이유를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대상의 발달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다.
- ④ 대상과 관련한 두 이론을 통합하여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⑤ 대상의 구조적 특징을 유사한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조금은 해수면의 높이가 하루 중 가장 낮을 때를 말한다.
- ② 지구에 작용하는 달에 의한 기조력이 태양에 의한 기조력보다 크다.
- ③ 달에 의한 기조력은 지구의 어느 지점에서나 크기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 ④ 조석은 밀물과 썰물로 인한 해수면의 높이 변화가 가장 클 때를 의미한다.
- 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는 기조력에 의한 조류의 방향이 하루에 한 번만 육지로 향하게 된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달의 위상이 삭일 때, ㄱ지점에는 지구의 원심력이 달의 인력보다 크게 작용하겠군.
- ② 달의 위상이 망일 때, 조석 간만의 차는 달의 위상이 상현일 때보다 크겠군.
- ③ 달의 위상이 삭이나 망일 때, 해수의 조류 속도는 한 달 중 가장 빠르겠군.
- ④ 달의 위상이 상현일 때, 조석에 영향을 미치는 기조력은 달의 위상이 삭일 때보다 약해지겠군.
- ⑤ 달의 위상이 상현이나 하현일 때, 조석 간만의 차는 최대가 되겠군.

국어 영역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미지란 무엇인가? 근대 철학자들은 우리가 현실 세계의 사물을 감각에 의해 지각하여 실재 세계를 구성하듯 이미지도 감각을 바탕으로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현실 세계는 인간에 의해 지각되기 이전에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를 의미하고, 실재 세계는 이러한 현실 세계를 인간의 지각에 의해 파악한 세계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미지는 감각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것은 불완전하게 지각된 모사물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들은 이미지가 지각의 하위 영역이며 실재 세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사르트르는 ‘이미지 이론’을 통해 상상 세계를 제시하면서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사르트르는 “㉡실재 세계와 상상 세계는 본질적으로 서로 공존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며 이 두 세계는 지각과 상상이라는 인식 방법의 차이에 따라 달리 인식되는 것이라 설명한다. 이는 두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를 지각에 의해 인식하기도 하고 상상에 의해 이미지로 인식하기도 한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사르트르는 현실 세계가 우리의 의식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실재 세계와 상상 세계로 나누어지며 이 둘이 동시에 인식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르트르는 이전까지 실재 세계에 속한 영역이자 열등한 복사물 정도로 ㉣여겨져 왔던 이미지를 실재 세계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상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정신 의식으로 규정하였다.

이렇게 사르트르에 의해 실재 세계로부터 독립된 이미지는 인식된 그 순간부터 온전한 전체가 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지각에 의해 인식된 실재 세계는 세부적 특성이 파악될 때마다 변화하는 것에 비해 이미지는 우리가 아는 만큼만, 혹은 우리가 의도한 만큼만 구성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상을 비추는 조명의 색이 ㉤달라지면 실재 세계에서 지각되는 색채는 그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미지는 조명의 색이 달라지더라도 상상 세계에서 항상 같은 색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지는 지각에 의해 파악되는 실재 세계의 속성들과 단절되어 상상 세계에서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작년에 외국으로 떠난 친구에 대해 상상할 때, 그와 함께 하던 빈 방을 보며 그의 부재라는 실재 세계는 사라지고, 상상 세계에 이미지화되어 있는 친구의 모습만 떠오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예술을 바라본다면, 예술은 늘 변할 수밖에 없는 실재 세계가 아닌 독립된 상상 세계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고전적인 조각의 경우를 예로 들면 예술가는 자신이 지각한 그대로를 완벽하게 표현하려 ㉥애쓰지만 실재 세계에서 인식되는 대상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결국 지각에 의한 재현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각을 상상 세계에서 이미지화하면 의도한 만큼 작품을 변하지 않게 구성할 수 있다. 이때 비로소 예술가가 나타내고자 했던 이미지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르트르는 변화하는 실재 세계가 아닌 독립된 상상 세계에서 예술을 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근대 철학자들은 이미지가 지각의 하위 영역이라고 생각했다.
- ② 근대 철학자들은 이미지가 대상을 온전하게 지각한 것이 아니라 모사한 것이라고 보았다.
- ③ 근대 철학자들은 실재 세계와 이미지 모두 감각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④ 사르트르는 이미지가 인식된 그 순간부터 이미지를 온전한 전체로 보았다.
- ⑤ 사르트르와 근대 철학자들의 입장이 다른 이유는 대상의 인식 주체를 다르게 보았기 때문이다.

5. 윗글의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코메티, 「도시 광장」

이 작품은 인간을 단순화하여 인간의 형상을 양상한 몰골로 드러냈다. 또한 광장에서 사람들이 엇갈린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이미지화하여 인간의 고독한 삶이라는 의미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감상자와 작품의 거리가 달라지더라도 대상이 전달하는 이미지는 변하지 않는다.

- ① 작가는 인간의 고독한 삶이라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상상 세계에서 이미지화했겠군.
- ② 작가는 나타내고자 했던 이미지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변화하는 실재 세계를 지각하려고 고민했겠군.
- ③ 작가가 인간을 단순화하여 조각한 것은 현실 세계를 상상이라는 인식 방법을 통해 이미지로 인식했기 때문이겠군.
- ④ 작가가 사람들이 엇갈린 방향으로 걷는 모습을 이미지화했기 때문에 실재 세계의 속성들과 단절되어 나타났겠군.
- ⑤ 감상자와 작품의 거리가 달라지더라도 전달하는 이미지가 변하지 않는 것은 작가가 의도한 만큼만 이미지를 구성했기 때문이겠군.

6. 윗글을 통해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실재 세계가 상상 세계로 통합되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의식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지는 두 세계가 동시에 인식될 수 없기 때문이다.
- ③ 대상이 주는 인상의 강도 차이에 따라 두 세계가 분명히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지각된 대상과 완벽히 일치하는 세계와 지각된 대상과 일치하지 않는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 ⑤ 분리된 두 세계는 정신 의식 속에서는 분리되지 않으며, 결국 인과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7.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표명했다 ② ㉡: 의미한다
- ③ ㉢: 간주되어 ④ ㉣: 변화하면
- ⑤ ㉤: 피력하지만

국어 영역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이두병이 스스로 황제라 일컫고 국법을 새로이 하여 각국 열읍에 공문을 보내 벼슬도 올려 주는지라. 여러 신하들이 모여 동궁을 폐하여 외객관으로 내치니, 후궁과 벼슬아치들과 내외궁의 노비 등이 하늘을 부르짖고 땅을 치며 끝없이 슬프고 마음 아파하니 ㉠푸른 하늘이 부르짖는 듯하고 태양도 빛을 잃은 듯하더라. 이때 왕 부인이 이러한 변을 보고 크게 놀라 실색하여,

“마땅히 죽으리로다.”

하며, 주야로 하늘을 향해 빌며 말하기를,

“웅의 나이 팔 세에 불과하니 죄 없는 것을 살려 주소서.”

하며 애걸하니 그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겠더라. 웅이 모친을 붙들고 만 가지로 위로하여 말하기를,

“모친은 불효자식을 생각하지 마시고, 천금같이 귀하신 몸을 보존주소서. 꿈 같은 세상에 유한한 간장을 상하게 하지 마소서. 인생에서 죽는 일 하나만은 제왕도 마음대로 못하옵거늘 어찌 한 번 죽음을 면하오리까? 짐작하옵건대 ㉡이두병은 우리의 원수요, 우리는 그의 원수가 아니오니 어찌 조웅이 이두병의 칼에 죽겠사오리까? 조금도 염려치 마옵소서.”

하며 분기를 참지 못하더라.

이때 이두병이 큰아들 관으로 동궁을 봉하고 국호를 고쳐 평순황제(平順皇帝)라 하고 연호를 새로 고쳐 건무(建武) 원년(元年)으로 삼았다.

이즈음에 송 태자를 외객관에 두었더니, 여러 신하들이 다시 간하여 태산 계량도에 유배하여 주거를 제한하고 소식을 끊게 하였다. 이날 왕 부인 모자가 태자께서 유배되었다는 말을 듣고 망극하여,

“우리 도망하여 태자를 따라 사생(死生)을 한 가지로 하고 싶으나 종적이 탄로나면 이에 앞서 죽을 것이니 어찌하리오?”

하며 모자가 주야로 통곡하더라. 하루는 웅이 황혼의 명월을 보며 원수 갚을 모책을 생각하더니, 마음이 아득하고 분기탱천(憤氣撐天)한지라. 울적한 기운을 참지 못하여 부인 모르게 중문에 내달아 장안 큰길 위를 두루 걸어 한 곳에 다다르니 여러 사람들이 모두 모여 시절 노래를 부르거늘, 들으니 그 노래는 이러하더라.

국과군망(國破君亡)* 하니 무부지자(無父之子)* 나시도다.

문제(文帝)가 순제(順帝)되고 태평(太平)이 난세로다.

천지가 불변하니 산천을 고칠소냐.

삼강이 불퇴하니 오류를 고칠소냐.

맑고 밝은 하늘에서 소슬히 내리는 비는

충신원루(忠臣冤淚) 아니면 소란스럽게 구는 사람의 하소연이로다.

슬프구나 백성들아, 오호에 한 조각배를 타고

사해에 노니다가 시절을 기다려라.

웅이 듣기를 다함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두루 걸어 경화문에 다다라 대궐을 바라보니, 인적은 고요하고 월색은 뜰에 가득한데 오리와 기러기 몇 쌍이 못에 떠 있고, 십 리나 되는 화원에 전 왕조의 경치와 풍물 아닌 것이 없더라. ㉢전 왕조의 일을 생각하니 일편단심에 굽이굽이 쌓인 근심이 갑자기 생겨나는지라. 조웅이 담장을 넘어 들어가 이두병을 만

나서 사생을 결단하고 싶으나 힘이 모자랄뿐더러, 문 안에 군사가 많고 문이 굳게 닫혀 있는지라 할 수 없이 그저 돌아 서며 분을 참지 못하여 붓을 넣어 차고 다니던 주머니에서 붓을 내어 경화문에 글자가 잘 보이도록 글자를 크게 써서 이두병을 욕하는 글 몇 구를 지어 쓰고는 자취를 감추어 돌아오더라.

(중략)

이날 밤에 황제가 꿈이 몹시 흉하고 참혹하기에 날이 밝기를 기다려 여러 신하들을 궁궐로 불러 들여 꿈속의 일을 의논할 때, 경화문을 지키던 관원이 급히 고하기를,

“밤이 지나고 나니 문밖에 없던 글이 있기에 옮겨 적어 올립니다.”

황제가 그 글을 보니,

‘송나라 황실이 쇠약하고 미미하니 간신이 조정에 가득하다! 만민이 불행하여 황제의 상이 나셨도다! 동궁이 장성하지 못했으니 소인이 득세하는 때로다! 만고 소인 이두병은 벼슬이 일품이라. 무엇이 부족하여 역적이 되었던 말인가? 천명이 온전하거늘 네 어이 장수하리오. 동궁을 어찌하고 네가 옥새를 전수하느냐? ㉤진시황의 날랜 사슴 입자 없이 다닐 때에 초패왕의 세상 덮는 기운과 범종의 신기한 능력으로도 임의로 못 잡아서 임자를 주었거늘*, 어이할까 저 반적아! 부귀도 좋거니와, 신명을 돌아보아 송업을 끊지 말라. 광대한 천지간에 용납 없는 네 죄목을 조목 조목 생각하니 한 줄의 글로도 기록하기 어렵도다.

이 글은 전조 충신 조웅이 삼가 쓰노라.’

하였더라.

황제와 여러 신하들이 보고 나서 놀라며 분기등등하여 우선 경화문 관원을 잡아들여 그때에 잡지 못한 죄로 곤장을 쳐서 내치고는 크게 호령하여 조웅 모자를 결박하여 잡아들이라 하니 장안이 분분한지라. 관원들이 조웅의 집을 에워싸고 들어가니 인적이 고요하고 조웅 모자는 없는지라. 죄인을 다스리는 벼슬아치가 돌아와서 도망한 사연을 황제에게 아뢰니, 황제께서 책상을 치며 크게 노하여 대신을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조웅 모자를 잡지 못하면 여러 신하에게 중죄를 내릴 것이니 바빠 잡아 짐의 분을 풀게 하라.”

하니, ㉥여러 신하들이 매우 급하고 두려워하여 장안을 에워싸고, 또한 황성 삼십 리를 겹겹이 싸고 곳곳을 뒤져 본들 별써 삼천 리 밖에 있는 조웅을 어찌 잡으리오.

— 작자 미상, 「조웅전」 —

* 국과군망: 나라가 망하고 임금이 돌아가심.

* 무부지자: 아버지가 없는 아들.

* 진시황의~주었거늘: 진시황이 죽고 초패왕 항우가 그의 용맹함과 비범한 능력을 가진 책사 범증이 있음에도 황제가 되지 못하고 결국 유방이 황제가 된 일을 말함.

국어 영역

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왕 부인은 이두병이 황제에 오르자 조웅의 안위를 걱정했다.
- ② 조웅 모자는 송 태자와 사생을 같이 하겠다는 계획을 실행했다.
- ③ 이두병은 송 태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큰아들을 동궁으로 봉했다.
- ④ 이두병은 송 태자를 유배 보내자는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 ⑤ 이두병은 조웅이 쓴 경화문의 글을 보고 조웅을 잡아들이게 했다.

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웅전은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 찍어낸 방각본 소설로 여러 판본의 작품들이 남아 있다. 이 작품에는 선의 회복을 추구하는 작가와 수용자의 욕망이 내재되어 있어 당시 독자들에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영웅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악을 물리치고 태평한 질서를 회복하려는 선의 욕망을 지닌 인물이다. 반면 반역을 꾀하는 인물들은 악의 욕망을 지녀 선의 욕망을 지닌 인물들과 대립하고 갈등한다.

- ① 이두병이 황제의 자리에 올라 송 태자를 내쫓는 모습에는 악의 욕망이 드러나 있군.
- ② 원수 갚을 묘책을 생각하는 조웅의 모습에는 악에 맞서려는 선의 욕망이 나타나 있군.
- ③ 여러 사람들이 부른 ‘시절 노래’에는 선의 회복을 추구하는 작가와 수용자 층의 욕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군.
- ④ 조웅이 경화문에 쓴 글에는 악을 물리치고 태평한 질서를 회복하고 싶은 조웅의 욕망이 내재되어 있군.
- ⑤ 경화문에 글을 쓴 조웅을 잡지 못하는 관원들의 모습에서 악이 선의 세력에 의해서 축출되었음을 알 수 있군.

10.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새로운 황제의 등극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슬픔을 비유적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 이두병과의 싸움의 결과를 회의적으로 전망하는 조웅의 심리를 대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③ ㉢: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새로운 황제에 대한 조웅의 원망을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고 있다.
- ④ ㉣: 이두병이 황제가 된 것은 하늘의 뜻이었음을 고사(古事)를 인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⑤ ㉤: 이두병을 속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하들의 모습을 편집자적 논평으로 드러내고 있다.

국어 영역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돈으로 의관이라는 벼슬을 산 조 의관은 족보인 대동보를 엮는 데 돈을 쓰며 ○○당 할아버지 산소를 꾸미자는 문중의 요구를 받고, 조상훈은 이 문제로 육촌인 조창훈과 다툰다.

영감도 결단코 어수룩한 사람은 아니다. 어수룩이라니 거의 후반생을 셈과 ㉠주판으로 늙은 사람이었다.

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면서 천냥 만냥 판*으로 돌아다니거나 있는 집 사랑 구석에서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는 조가의 떨거지들이 다른 수단으로는 이 영감의 주머니끈을 풀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족보를 앞장세우고 삶고 굶고 하는 바람에 조춤조춤 쓰기 시작한 것이 삼천여 원 근 사천여 원을 쓰게 되고 보니 속으로 뽕뽕 앓는 판인테 또 ㉡○○당 할아버지를 앞세워서 오천 원 논란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오천 원을 부른 사람도 그만큼 불러야 삼천 원은 우려 내려니 하는 것이요, 조 의관도 오천 원의 반절은 아무래도 또 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죽을 날이 알박하여 가니까 ×× 조씨 문중에서 자기가 둘째 중시조*나 되는 셈치고 이 세상에 남겨 놓고 가는 기념사업이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해보려는 노릇이다.

그래서 요새로 부쩍 달고 치는 바람에 그러면 우선 ㉢천원 하나를 내놓을 터이니 오백 원은 산소를 꾸미는 데에 쓰고 오백 원은 묘막을 짓되 부족되는 것은 조상의 산소 근처에 있는 조씨들이 금력으로 보태든지 돈 없는 사람은 부역으로 ㉣흙 한 줌 떼 한 장씩이라도 떠다가 힘으로 보태라고 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제위답*으로는 다소간 나중에 마련해 놓으라고 하였다. 조 의관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천 원 내놓고 이천 원 들인 생색은 내려니 하는 속다짐이다.

“그래야 결국 아저씨께서는 돈 천 원 하나밖에 안 내놓으신다니까 나중에 뒷감당은 우리 발로다 돌아다니며 굶어모아야 할 셈이라네. 말 내놓고 안 할 수 있나! 이래저래 뺏골만 빠지고 잘못되면 시비는 우리만 만나고…….”

창훈이는 한참 앓았다가 혼잣말처럼 이런 소리를 한다.
“장한 사업 하슈. ○○당 할아버지가 묘막 지어달라고, 산소 앞에 석물(石物)이 없어서 호젓하다고 하십디까?”

상훈이는 ‘합디까’라고 입에서 나오는 것을 겨우 ‘하십디까’라고 존대를 하였다. ○○당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좀 어설프다. 예수교인이라 하여 자기 조상을 존경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부친이 새로 모셔 온 십 몇 대조 할아버지라 하니 좀 낯설기 때문이다.

“그런 소린 아예 말게. 자네는 천주학을 하니까 이런 일에는 반대인지 모르지만 조상 없이 우리 손이 어떻게 퍼졌으며 ㉤조상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 조씨도 그렇게 해서 남에 빠지지 않고 자자손손에 번창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창훈이는 못마땅한 것을 참느라고 더욱 이죽이죽 대거리를 한다.

(중략)

“대동보소만 하더라도 족보 한 길에 오십 원씩으로 매었다 하니 그 오십 원씩을 꼭꼭 수봉하면 무엇 하자고 삼사천

원이 가외로 들겠습니까?”

“삼사천 원은 누가 삼사천 원 썼다던?”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하였으나 실상 그 삼사천 원이란 돈이 족보 박는 데에 직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 조씨로 무후(無後)한 집의 계통을 이어서 일문일족에 끼려 한즉 군식구가 늘면 양반의 진국이 묶어질까 보아 반대를 하는 측들이 많으니까 이 입들을 씻기 위하여 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난봉자식이 난봉 핀 돈 액수를 줄이듯이 이 영감도 실상은 한 천 원 썼다고 하는 것이다. 중간의 협잡배는 이런 약점을 노리고 우려 쓰는 것이지만 이 영감으로서는 성한 돈을 가지고 이런 병신 구실 해보기는 처음이다.

[A] “그야 얼마를 쓰셨든지요. 그런 돈은 좀 유리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하자 유구무언*’의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노친 앞이라 말은 공손했으나 속은 달았다.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냐? 너같이 오륙천 원씩 학교에 디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냐?”

아까부터 상훈이의 말이 화룻가에 앉아서 폭발탄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서 위태위태하더라니 겨우 간정되려던 영감의 감정에 또 불을 붙여 놓고 말았다.

상훈은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벌게진다.

부친의 소실 수원집과 경애 모녀와는 공교히도 한 고향이다. 처음에는 감쪽같이 속여 왔으나 수원집만은 연줄연줄이 닿아서 경애 모녀의 코빼기도 못 보았건마는 소문을 뻔히 알고 따라서 아이를 낳은 뒤에는 집안에서 다 알게 되었던 것이다. 덕기 자신부터 수원집의 입에서 대강 들어 안 것이다. 그러나 상훈이 내외끼리 몇 번 싸움질이 있던 외에는 노영감도 이때껏 눈 감아 버린 것이요, 경애가 들어 있는 북미창정 그 집에 대하여도 부친이 채근한 일은 없는 것이라서 지금 조인광 좌중(稠人廣座中)*에서 아들에게 대하여 학교에 돈 쓰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 유인하였다는 말을 터놓고 하는 것을 들으니 아무리 부친이 화감에 한 말이라 하여도 듣기에 괴란쩍고 부자간이라도 너무 야속하였다.

“아버님께서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어쨌든 세상에 좀 할 일이 많습니까. 교육 사업, 도서관 사업, 그 외 지금 조선어 자전 편찬하는데…….”

상훈은 조심도 하려니와 기를 녹이어서 차근차근히 이왕지사 말이 나왔으니 할 말은 다 하겠다는 듯이 말을 이어 나가려니까 또 벼락이 내린다.

“듣기 싫다! 누가 네게 그 따위 설교를 듣자든? 어서 가거라.”

“하여간에 말씀입니다. 지난 일은 어쨌든 지금 이 판에 별안간 ㉥지집*이란 당한 일입니다. 치산만 한대도 모르겠습니까마는 서원을 짓고 유학생들을 몰아다 놓으시렵니까? 돈도 돈이거니와 지금 시대에 당한 일입니까?”

상훈이는 아까보다 좀 언성을 높여서 반대를 하였다.

“잔소리 마라! 그놈 나가라니까 점점 더하고 쏘구나. 내가 무얼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내가 죽으면 동전 한 닢이라도 너를 남겨 줄 줄 아니! 너는 이후 아무리 굶어 죽는다 하여도 한 푼 없다. 너는 없는 셈만 칠 것이니까…… 너희들도 다 들어 두어라.”

국어 영역

하고 좌중을 둘러다보며 말을 잇는다.

[B] “내 재산이라야 얼마 있는 게 아니다마는 반은 덕기에게 물려줄 것이요, 그 나머지로 는 내가 쓰고 싶은 데 쓰다 남으면 공평히 나누어 주고 갈 테다. 공증인을 세우든 변호사를 불러 대든 하여 뒤를 깡그러뜨려 놓 것이니까 너는 인제는 남 된 셈만 쳐라. 내가 죽으면 내가 머리를 풀 테냐? 거상을 입을 테냐?”

— 염상섭, 「삼대(三代)」 —

* 천냥 만냥 판: 노름판이라는 뜻.

* 중시조: 쇠퇴한 가문을 다시 일으킨 조상.

* 제위답: 추수한 것을 조상의 제사 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마련한 논.

* 재하자 유구무언: 아랫사람으로서 어른에 대해 논쟁하지 못함을 이룸.

* 조인광 좌중: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가운데.

* 치산: 산소를 매만져서 다듬음.

1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으로 인물들의 복잡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인물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특정 인물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의 상징성을 활용하여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인물들의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주제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⑤ 현재와 과거의 장면을 교차하여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1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조 의관이 금전적인 판단이 어설프지 않은 인물임을 드러낸다.
- ② ㉡은 조 의관이 새로운 지출을 하게 될 원인이 된다.
- ③ ㉢은 조 의관이 문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최대 금액이다.
- ④ ㉣은 묘막 짓는 일에 문중 사람들이 힘으로라도 보태야 한다는 조 의관의 생각을 보여준다.
- ⑤ ㉤은 묘막 짓는 일에 불만인 상훈을 염두에 두고 창훈이 한 말이다.

13. [치산]과 관련한 인물들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훈’은 이 일로 집안이 몰락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 ② ‘조 의관’은 이 일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내놓기로 했다.
- ③ ‘조가의 떨거지들’은 가문의 발전을 위해 이 일을 제안했다.
- ④ ‘창훈’은 이 일로 문중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고민하고 있다.
- ⑤ ‘조 의관’은 이 일로 자신이 문중에 기념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14. [A]와 [B]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상훈은 조 의관에게 장자로서 신임을 얻으려 애쓰고 있다.
- ② [A]에서 상훈은 유산 상속에 대한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③ [B]에서 조 의관은 상훈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 ④ [B]에서 조 의관은 [A]의 상훈의 비판을 수용하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상대방에 대한 동정심을 드러내고 있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삼대」는 구한말을 대표하는 할아버지 조 의관, 개화기를 대표하는 아버지 조상훈, 일제 강점기를 대표하는 손자 조덕기를 통해 1920~30년대의 생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고 근대적으로 변화되는 시대상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 속의 인물들은 돈을 중심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특히 봉건적 의식을 지닌 조 의관과 개화기 지식인이지만 위선적인 조상훈의 대립을 통해 세대 간의 갈등을 보여 주기도 한다.

- ① ‘교육 사업’이나 ‘도서관 사업’을 강조하는 상훈의 모습에서 개화적 지식인으로서의 일면이 드러나는군.
- ② 조 의관이 신분을 사고 족보를 꾸미는 데 돈을 들인 것을 통해 조 의관의 봉건적 가치관이 드러나는군.
- ③ 조 의관의 비난에 상훈이 변명하는 것을 보니, 상훈은 개화적 의식은 지녔지만 민족의 현실을 외면하는 인물이군.
- ④ 상훈이 조 의관과 조상을 섬기는 일로 연쟁하는 것을 보니, 상훈은 조 의관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군.
- ⑤ 조 의관이 재산의 반을 상훈이 아니라 덕기에게 상속하려는 것을 통해 돈을 중심으로 세대 간의 갈등이 나타났던 시대상을 엿볼 수 있군.

②②⑤⑤②

②⑤②⑤①

①③⑤③③

해설

** 과학 **

□ 출전: 강효진 외, <해양학>

1.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 이 글은 ‘조석 간만의 차’가 일어나는 이유를 달의 인력만이 아니라 태양의 인력, 달의 인력, 원심력의 합력인 기조력이라는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2.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 4문단을 볼 때 태양은 달보다 큰 질량을 갖지만 달에 비해 지구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구에 미치는 태양의 기조력은 달의 기조력에 비해 절반 정도임을 알 수 있다.
- ③ 3문단에서 기조력은 달의 위상에 따라 지구 내에서 그 크기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 <보기>의 그림은 태양과 달이 지구와 일직선에 있는 상황과 지구와 달이 직각으로 놓여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보기>에서 달의 위상이 상현이나 하현일 때에는 기조력이 작아지게 되고, 그 결과 조석 간만의 차가 가장 작아져 ‘조금’이 나타난다.
4.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 A형 27번 해설 참고.
5. [출제의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 A형 28번 해설 참고.
6.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 A형 29번 해설 참고.
7. [출제의도]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하기
- A형 30번 해설 참고.

** 예술 **

□ 출전: 지영래, <사르트르의 미술론>

4.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 A형 27번 해설 참고.
5. [출제의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 A형 28번 해설 참고.
6.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 A형 29번 해설 참고.
7. [출제의도]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하기
- A형 30번 해설 참고.

** 고전 소설 **

□ 출전: 작가 미상, <조웅전>

8.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 왕 부인이 송 태자가 폐위되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 도망하여 태자를 따라 사생을 한 가지로 하고 싶으나 중적이 탄로 나면 이에 앞서 죽을 것이니 어찌하리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송 태자와 사생을 같이 하겠다는 계획을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여러 신하들이 다시 간하여 태산 계량도에 유배하여 주거를 제한하고 소식을 끊게 하였다.’와 송 태자가 유배된 것을 볼 때 송 태자를 유배 보내자는 신하들의 제안을 이두병이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9.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 관원들은 경화문에 글을 쓴 조웅을 잡지 못했다. 이 부분은 악의 세력과 선의 욕망을 지닌 인물의 갈등을 보여 주는 것이지 선의 세력에 의해서 악이 축출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 ① 이두병은 반역을 통해 황제가 되고 송 태자를 폐하는 모습에서 악의 욕망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② ‘~원수 갚을 묘책을 생각하더니, 마음이 아득하고 분기탱천한지라’에는 악과 대결하려는 조웅의 욕망이 드러나 있다. ④ ‘둥굴을 어찌하고 네가 옥새를 전수하느냐’, ‘신명을 돌아보아 송업을 끊지 말라’ 등을 통해 조웅이 악을 물리치고 태평한 질서를 회복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이해하기
- 이두병이 황제가 되고 송 태자가 폐위당하자 후궁과 벼슬아치들, 내외궁의 노비 등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땅을 치며 슬퍼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듯하고’, ‘~듯하더라’의 비유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는 조웅의 태도를 대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③ ㉡은 이전 왕조에 대한 일편단심과 현재 상황에 대한 조웅의 근심을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고 있다. ④ ㉢은 이두병이 황제가 된 것은 부당한 일임을 고사를 인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⑤ ㉣은 이두병의 명령을 어기게 될까 두려워하는 신하들의 모습과 조웅 모자가 이미 멀리 달아나 잡을 수 없는 상황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현대 소설 **

□ 출전: 염상섭, <삼대(三代)>

11.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 둘째 문단에서는 조 의관이 문중으로부터 ○○당 할아버지의 치산 요구를 받고 이에 대해 여러 면으로 따져 보는 복잡한 심리를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으로 직접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에 대한 창훈과 상훈이 언쟁하는 부분과 조 의관과 상훈이 논쟁하는 부분에서도 인물들의 복잡한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고 있다.
- ⑤ 인물들의 대화와 서술자의 서술 내용에 과거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현재와 과거의 장면이 교차되고 있지는 않으며 인물의 성격도 변화하지 않는다.
12.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 조 의관은 ○○당 할아버지의 치산에 드는 비용을 내는 것이 기념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문중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도는 없다.
- ① ㉠은 조 의관이 계산에 밝은 인물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당 할아버지의 치산에 드는 비용을 조목조목 따지는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에는 묘막을 짓는 데 돈이 없는 조씨 문중 사람들이 부역으로라도 참여해야 한다는 조 의관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13. [출제의도] 중심 소재에 대한 인물의 태도 파악하기
- 조 의관은 치산을 자신이 문중에서 둘째 중시조나 되는 셈치고 하는 기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조 의관은 치산을 통해 문중에 기념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① 상훈은 ○○당 할아버지가 몇 대조인지도 모르고 “장한 사업 하슈.~호것하다고 하십디까?”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치산에 대해 조 의관이 많은 돈을 들이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치산이 자기 집안에 득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 뿐, 집안이 몰락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둘째 문단에서 조가의 딸거지들은 조 의관의 주머니를 풀게 하려고 ○○당 할아버지 치산을 명목으로 내세웠음을 알 수 있다. ④ 창훈은 치산에 대해 조 의관이 충분한 돈을 내놓지 않아 자신이나 문중에서 뒷감당을 해야 한다고 불만이 섞인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이로 인해 문중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다.
14. [출제의도] 인물 간의 대화 양상 파악하기
- [A]에는 대동보소 운영으로 사천 원을 쓰고 또 치산으로 돈을 쓰려는 조 의관에 대한 조상훈의 불만이 드러나 있다. 또한 여기에는 조 의관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B]에서는 조 의관이 자신의 재산을 상훈에게는 일절 물려주지 않겠다고 공언함으로써 상훈에 대한 자신의 불만과 불신을 강경하게 드러내고 있다.
15.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 조 의관은 “어떻게 유리하게~쓰는 방법이냐?”라고 말하며 상훈의 개인적인 행적을 비난하고 있으나 상훈은 조 의관의 말에 변명을 하고 있지는 않다.
- ④ 상훈이 조상을 섬기는 데 지나치게 돈을 쓰는 조 의관에 대해 못마땅해 하며 언쟁하는 모습에서, 상훈은 조 의관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